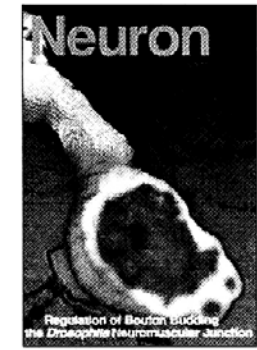


'사람은 본래 이기적일까, 아니면 이타적일까.'

불교에서는 인간존재의 근본을 이타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학과 심리학에서는 이 두 가지가 혼재된 시각을 보여 왔다. 심지어 생물학에서는 유전자학 이기주의적인 정보체계로 구성돼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불교적 인간존재 규정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과학이 과연 불교교리의 진리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인지 불교학계의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인간은 본래 利他的이다”

### 美 에모리대 의학전문지 '뉴런' 연구논문 게재

미국 에모리 대학의 정신의학·행동과학 연구팀은 의학전문지 <뉴런(Neuron)> 최신호(18일 자·사전에 발표된 '사회적 협력을 위한 신경계의 기초'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에서 '사람이 서로 간에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선한' 행동이 즐거운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20~26세 여성 26명을 대상으로 '협력'이나 '배신' 이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상황실험에 참가하게 한 뒤 뇌신경의 움직임은 MRI(자기공명장치)로 실시간 촬영한 결과, 협력적인 태도를 보일 때 뇌에서 즐거움을 유발시키는 신경조직이 최고조로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뇌신경의 활성화 체계가 사람의 이타주의를 강화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억제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의 그레고리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우리가 서로 협력하도록 신경계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고 말했다. 즉, 인간 생리학적 체계에 이타적인 요소가 내재돼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생존상

필요 때문에 서로 협력해 왔다'거나 '규범과 약속에 대한 처벌 위협이 서로를 돕게 만든다'는 이론을 내세워왔다. 이에 반해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협력적인 태도는 단지 외부에서 주어지는 처벌 위협이나 보상 체계 때문만이 아니라 개인의 생리학적 체계에 이타적인 요소가 내재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프린스턴대의 제임스 K리링 교수는 설명했다.

## 선행때 '즐거움 유발' 뇌조직 활성화

### “사람에게 불성 있다는 불교논리 입증된 것” “보살도 가르치는 유식학의 大義와 일치”

연구진은 그러나 인간의 다른 성향과 마찬가지로, 이같은 협력심의 강도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용정 박사(동국대 명예교수, 과학사학 편집장)는 “인간은 조화와 질서의 유기체로 태어나기 때문에 본래 선(善)하지만 무지에 가려져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하고 “연구팀이 받아들여온 그렇지 않은 간

에 이번 연구결과는 결국 인간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는 불교의 논리를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그 논리적 근거로 "인간 뇌에 협력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인간이 공생을 본질로 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인간의 진화와 공생은 이타적인 심성, 즉 불성을 찾아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불교 유식학의 권위자인 오형근 박사(동국대 명예교수, 대승불교연구원장)는 "이번 연구결과가 다른 사람을 돕는 보살도를 가르치는 유식학의 대의(大義)와 일치한다"며 "인간을 이타적인 존재로 본 불교적 관점의 일면을 발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박사는 "협력심의 강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무지를 어느 정도 견어냈느냐의 차이이며, 수행은 바로 그 무지를 벗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또 "서구 심리학과 과학이 이제는 불교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불교가 오래전부터 말해온 진리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 수록 더욱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ia.com



##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 33. 금강산과 법기보살신앙

금강산은 '일만이천봉, 팔만구암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불가의 향내가 깊어 있으며 있는 도량이다.

그러나 6·25이후, 이 땅의 산과 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사랑하던 한국불교는 법기보살의 상주설법 도량으로 확인되고 신앙되어 온 금강산을 잃어버렸다. 지금 우리는 남북의 분단의 탓으로 법기보살, 즉 담무갈보살의 신앙을 까마득히 잊고 있지만 우리의 옛 선조들은 금강산이 바로 법기보살의 성지라는 믿음으로 그곳을 마음두는 도량으로 삼아왔다. 그렇다면 법기보살은 어떤 보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신앙되어 왔는가. 법기보살(法起菩薩)의 범어 명칭은 다르모가타(Dharmogata)로서 담무갈(曇無竭)이라고 한역한다. 신역 <화엄경> 권45, <제보살주처품(諸菩薩住處品)>에서는 '법기보살'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구역 <화엄경> 권29, <보살주처품>과 <소품반

히 정리하고 산마다 나름의 기(氣)가 흐르고 수도의 방편이 다르다는 것을 세밀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의 평장사(平章事), 민지(閔漬, 1248-1326)는 그가 편찬한 <금강산유점사사적기>에서 "신라의 옛 기록에 의하면 의상법사께서 처음 오대산에 드셨다가 금강산에 드시자 담무갈보살이 현신하여 법사께 '오대산은 수행이 있는 사람들과 세간의 티끌을 벗어날 수 있는 땅이지만 우리의 옛 선조들은 금강산이 바로 법기보살의 성지라는 믿음으로 그곳을 마음두는 도량으로 삼아왔다. 그렇다면 법기보살은 어떤 보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신앙되어 왔는가. 법기보살(法起菩薩)의 범어 명칭은 다르모가타(Dharmogata)로서 담무갈(曇無竭)이라고 한역한다. 신역 <화엄경> 권45, <제보살주처품(諸菩薩住處品)>에서는 '법기보살'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구역 <화엄경> 권29, <보살주처품>과 <소품반

또한 금강산의 여러 사암에서는 법기보살의 좌상, 입상을 봉안하고 있었다. 우선 금강산의 여러 사암의 연혁과 금석문, 시가, 성보(聖物)로

지등의 자료를 집대성하고 있는 <금강대본산유점사본말사지(金剛大本山楡岾寺本末寺誌, 1942년 유점사 종무소 간행, 전886쪽)>만을 자료로 한정하여 살펴 보더라도 법

## 바다가운데 금강산 있으니 법기보살이 권속들과 함께 머물며 법을 설하느니라

아바라밀다경> 권10의 <살타파룬품(薩陀波崙品)>과 <담무갈보살(曇無竭品)>에서는 '담무갈'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에 관한 옛 기록에서는 대부분 담무갈로 표기하고 있다. 신역(80권본) <화엄경> 권45, <제보살주처품(諸菩薩住處品)>에 의하면 법기보살은 금강산에 상주설법하는 보살이라고 한다. 즉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그곳에 머물렀으며 지금은 법기보살이 그의 권속 천이백 보살들과 함께 머물며 법을 설하느니라'라고 비교적 자세 기술되고 있다. 이처럼 <화엄경>을 통해서 우리의 도량, 금강산에 주석하는 보살로 수용된 법기보살 신앙은 우리나라 불교에 매우 큰 진폭을 남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불교도들은 금강산은 곧 법기보살의 상주처라는 토착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역사속에서 불교 승가만큼 이 땅을 구석구석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없었다. 그래서 옛 절집에서는 '북방 묘향산(妙香山), 남방 지리산(智異山), 서방 구월산(九月山), 동방 개골산(開骨山, 金剛山)'이라고 간단

기보살 신앙은 금강산 일대의 여러 사암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의 성보대장에 수록된 바에 의하면 법기보살 좌상과 입상 봉안 사례는 고려 강종(康宗) 2년(1213) 4월 형암(峴巖)스님이 조성한 유점사의 '법기보살좌상'과 익암(翼巖)스님이 조성한 표훈사의 목제도금 '법기보살입상', 또 건릉(健陵) 3년(1738) 함월해연(咸月海淵)스님이 찬한 <금강산표훈사사성전담무갈보살소상신조기(金剛山表訓寺四聖殿曇無竭菩薩像新造記)>, 강희(康熙) 6년(1667) 4월 유성(有成)스님이 조성한 신계사 미륵암의 목제도금 법기보살 좌상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품반아바라밀다경>에서는 자신을 팔아 진리를 구하는 법기보살의 구도담을 수록하고 있다. 이와같은 구도담은 우리의 옛 스님들과 신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불러 일으키고 반아바라밀을 설하는 법기보살, 즉 담무갈보살이 상주설법하는 금강산에 대한 자부심을 한층 높여 주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경학희 회주

## 중국 법문사 방장 정일스님 22일 입적

### 추도회향법회·다비식



추도법회와 다비식을 26일 거행했다.

정일 스님은 1922년 강소성 속 천시에서 출생, 19세에 출가했다. 장안현 정업사, 요연 대향산사, 부평현 현산사 등지에서 불학을 공부하고, 1948년 광동 운문사에서 당시 선종의 태두인 허운대사를 3년간 시봉하며, 가르침을 받았다. 1984년 법문사에 들어가 징관(證觀) 스님을 보좌해 사찰 중건에 나섰으며, 활발한 해외 포교로 외국에서 거금의 불사자금을 지원받았다.

중국불교협회 이사이자 서서성(陝西省)불교협회 회장인 법문사(法門寺) 방장 정일(淨一) 스님이 향년 81세로 22일 오후 9시 15분 원적(圓寂)에 들었다. 중국의 국보인 '부처님 손가락 사리(佛指舍利)' 4과 등 세계적인 성보를 다량 봉안하고 있는 법문사는, 사찰을 중창하고 선종의 중흥을 위해 매진한 스님을 기리는

1987년에는 경내 지하 궁전에서 불지사리가 출현, 세계를 놀라게 했다. 1994년 태국에 불지사리를 보내 2백만명의 불자들이 참배토록 했으며, 지난해는 대만에도 불지사리를 봉송해 350만명이 천견토록 했다. 1998년 법문사 대의 개방 10주년을 맞아, 법문사 방장에 취임해 선종 중흥을 위해 신행을 기울였다.

해외불교 담당=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태국 동자승, 여름안거前 헌화



사미계를 받은 200여 태국 동자승들이 6일 방콕 왓 배참마보뵈 사원에 헌화하기 위해 연꽃을 손에 든 채 거리를 걷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는 이 헌화 의식은 7월25일부터 시작되는 3개월간의 안거 수행 즉, 카오 판사(Khao Pansal)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 중국, 종교규제 완화 추진

### 차이나 뉴스서비스 보도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이 종교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의 반관영 차이나 뉴스 서비스가 20일 보도했다. 베이징 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작업이 법률화될 경우 종교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중국의 종교자유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불광산사, '심성정화 열차' 운행

대만 까오슝 불광산 총림학원 학인들은 19일 판교(板橋)강당에서 300여 청년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순회 포교활동을 펼치는 '심성 정화 여름 열차' 홍보에 나섰다. 50여 총림학원 학인들은 이날 불광산 총림학원을 소개하고 불광산과 관련한 시와 개송과 불교연극, 범패 등을 공연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얻었다. 학인들은 방학을 이용해 열차와 버스 등을 타고 대만 각지로 이동하며, 특정한 곳에서 문화포교를 벌인다.

# 육 六 임 壬 來 正 情 비 秘 法 法

◎ **혁 신 판** 1,500,000원 (휴대용 : 부록1권 · 설명비디오 1개)  
(**全 12卷**) 1,300,000원 (좌정용 : 부록1권 · 설명비디오 1개)  
**활인전문천역자용** 350,000원 (기존판 : 설명비디오 3개)

이 책은, 「바인더 처리」하여 매일 매일 것을 꺼내 보고 넣고 하게 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보고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좀더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구입하신 후 전화하십시오. 전국 어디라도 책 도착 날로부터 3일안에 찾아뵙고 자세하게 그 활용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활인천역(신도단련)의 차원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 효 사 -

- 활인천역자(스님·오행가·신명제자)의 필수서로 이미 검증 되어 있습니다.
- 찾아오거나 전화하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속사정을 시간별로 미리 알고 먼저 말해 줄 수 있는 비서입니다. 먼저 할 말은 앞면에, 묻는 일의 대답은 뒷면에 시간별로 써져 있습니다.
- 귀신과 산소탈과 빌미부정의 침범을 정확히 먼저 밝힌 후 이를 제거·해소 시킬 수 있게 됩니다.
- 천도·시식·부적·굿의 효과 여부를 미리 알고 시행할 수 있어 후련하고 명쾌해 집니다. 또 효과가 있게 하는 방법들이 써져 있습니다.

- ◎ **효사 육임강의록** 300,000원  
육임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 냈습니다.  
순서 : 기본편 입문편 전문편 활용편 형이상편 비방편 상담편 운명판단편 세밀정단편 월장편의 순(順)입니다.
- ◎ **육임학당 효사속** 1,200,000원(육임강의록 포함 : 총 28개)  
육임학당 효사속에서 실시하고 있는 3개월 과정의 강의 내용이 그대로 녹화 되어 있어 육임 공부에 독학완성되도록 하였습니다.
- ◎ **육임학당 효사속** 1,500,000원(육임강의록 포함)  
오는 9월 6일(금)부터 제 3기 강의가 시작 됩니다. 미리 신청해 두셔야만 입강 안내 순서에 들게 되십니다

※ 「한정 한눈으로 판단하는 사주법」과 「한정 한눈으로 짓는 작명 감정법」을 코칭치리로 만들었습니다. 만세력이 필요없이 평생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두개 100,000원입니다. 신청하십시오.  
▶ **주문전화 : 02-993-8680 ▶ 부산지사 : 051-851-2349 (직접배달-정현철) ▶ 입금구좌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